

세세에 돌릴지이다 아멘 하더라 장로중에 하나이 응답하야 내게 이르대 이 흰옷
 입은자들이 누구며 또 어대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이르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
 리이다 하니 그가 나다려 이르대 이는 큰 환난가운데서 온자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 하였는지라 ^{十五}그리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압헤 있고 또 그 성
 전에서 밤낮 성기매 보좌에 안지신이가 장막으로 그 우를 덮호리니 ^{十六}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모 쓰거유괴음이 상하지못할지라
^{十七}이는 보좌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
 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심이라

인치는일이 마친다음에 『요한』은 헬수업는 무리가 하나님외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
 을 찬송하는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써 보건대 인치는일이 마치는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수잇는바이다. 그 헬수업는 무리는 곳 각시대의 여러나라와 족속가운데
 서 구원을 바를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때에 죽은가운데서 부활하야 그리스도로 더
 부러 승천할자이다.

그후에 『요한』이 한 다른 무리가 씻는것을 보았는데 장로중에 하나이 『요한』에게 이르
 대「이 흰옷입은자들이 누구며 또 어대서 왔나뇨」하니 『요한』은「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하야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지못하는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입
 은무리는 九절에 말한 흰옷입은 무리와는 가지아니한 무리인것을 알수잇으니 九절에 말

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대서 온 무리인것을 아는리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헬수업
 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것을 알수잇는바 장로가 이르대「큰 환난가운데서 온
 자라」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하두에 말한바 十四만四천명이니 곳 하나님의 계명과 예
 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마진자요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잇을「개구
 이래로 업는 고난」가운데서 온자들이니(단十二〇) 곳 『야곱』의 환난을 맛볼자들이오
 (렘三十一〇四一七) 마지막 날륙 재앙이 나릴때에 대언자업시 설자들이다. 그러나 十六절의
 말씀은 보면 그들이 날륙 재앙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바를것을 알수잇는바이다. 그리고 하
 나님의 인마진자가운데서 이미 잘든자들도 잇으나 그들이 예수재림하시기 조곰전에 췌
 어이러나(단十二〇二,三) 큰 환난을 맛볼것이오 살아서 구원함을 바를것이다. 그때에는
 하늘보좌에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외 또
 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것이다.

닐 곱재 인

「닐 곱재 인을 세실때에 하늘이 반시동안쯤 고요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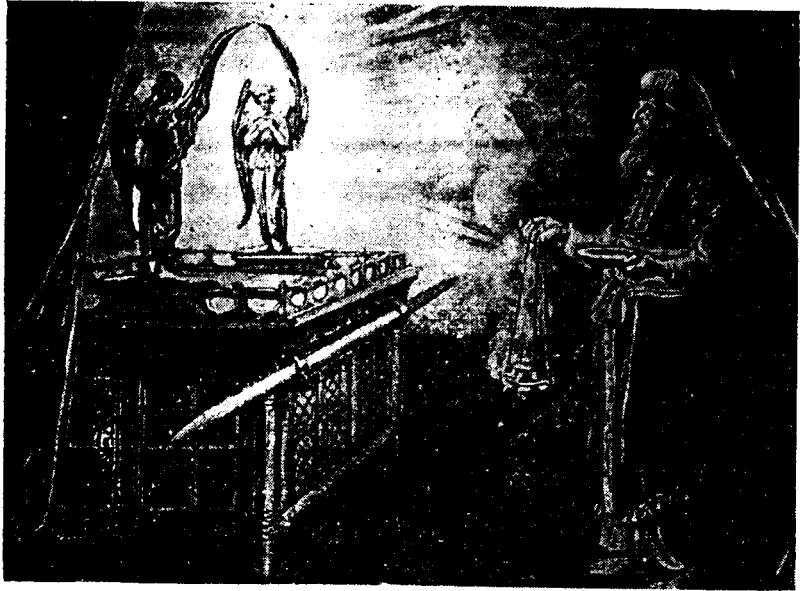
우리는 전장에서 닐 곱재 인이 시작하기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十四만四千명의 이 마에 인치는일이 있을것을 공부하였다. 이 일은 여섯째 인이 채 마치기전에 숫날 일인바 아직도 이일이 마쳐지지 안었다. 그러나 오래지아니하여 이일이 숫나고 닐 곱재 인이 시작될것인데 닐 곱재인이 시작될때에는 하늘이 반시동안 고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 고요한것은 무슨 까닭이며 반시는 얼마동안인가? 하늘보좌압해는 천만천사와 령물들이 항상 시위하야 잇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적이므로 언제든지 고요할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반시동안 고요할것이다. 반시는 예언상으로 해석하면 一주일쯤되거나 니 곳 예언상의 一일은 一년을 대표하므로 一일의 四十八분의 一인 반시장은 一년의 四十八분의 一인 一주일이 되는것이다. 조희축이 말리는것 가리 하늘이 응겨가고 모든 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음길때에 닐 곱재 인이 시작되고 하늘이 반시동안 고요할것이나 이는 인자가 이세상에 림하실때에 천만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림할것이며 이 큰일로 인하야 하늘이 一주일동안 고요할것을 가리친것이다.

닐 곱 라 발

「내가 보매 하나님압해 시위한 닐 곱천사가 잇는데 저희게 닐 곱 라 발을 주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겨례 서서 향을 만히 바다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화합하야 보좌 압 금단에 노흐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압호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우에 잇는 불을 가득히 담아 서에 싣드매 되성과 응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닐 곱라 발 가진 닐 곱 천사가 불기를 예비하다」

「요한」의 본바 처음부터 닐 곱교회는 하나님의 참교회를 위한 그의 경영을 보인것인데 교회로 하여금 숫까지 충성되히 행하도록 힘을 주기위함이니 이기는자에게 대한 허락이 각교회에게 제공되었다. 또한 「요한」의 둘째 묵시인 닐 곱인온 참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곳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니 이 묵시의 쓰레 약인들이 저의우에 산과 바위가 써러지기를 부르지존것이다. 그리고 셋째번 묵시가 닐 곱라 발이니 이 묵시도 닐 곱교회와 닐 곱인파 가리 예수께서 첫번 오셨을때로부터 그가 재림하실때까지 관계되는것이니 곳 그 가른 시기도안에 잇을 전장에 관한 묵시이다. 대개 라 발부는것은 전쟁을 표상하기에 가장 적당한바이다. (민十〇九, 겠七〇十四, 섬一〇十六, 렘四十二〇十四참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절망가운데 바라두시지 아니하신다. 닐 곱 라 발을 부는동안에 그 백성이 화를 만나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아지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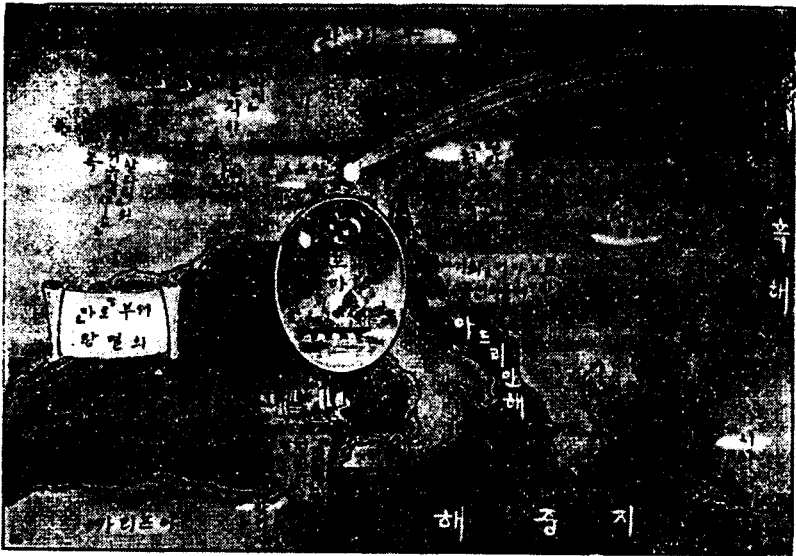
심한 언대야 하위틀리우서예도스리그장사 제대의리우는서에전성늘하

서 저희 기도를 드러주실 화증을 보여 주신 다음에 그 전화(戰禍)가 이러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요한』은 니킴 천사가 타발을 바든 다음에 다른 한 천사가 금항로를 가지고 제단겨레 서서 성도의 기도과 화합하야 보좌압 금단에 노흐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과 함께 하나님압호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요한』은 하늘에 잇는 성소의 참형상, 인류를 위하야 대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업을 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시대는 영원토록 미칠 것이 아니오 마침내 그 항로를 가지고 단우에 잇는 불을 가득히 담아 싸에 쏘들 것이니 그 때에 그리스도의 대신 기도하는 일은 영영 그치고 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 것이다. 세상 쓰레 이르러 은혜의 시대가 마치는 동시에 퇴성과 음성과 번

개와 지진이 날 것에 대하여는 성경 다른 곳에도 여러번 기재되었다. (묵十一(十九), 十六(十七), 十八)

『요한』이 니킴 타발에 관한 묵시를 본 때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이다. 이 나라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을 경배할 줄을 알 기회를 아조 만히 가졌다. 예수께서도 『로마』에 속한 한 국민으로 그의 지상생애를 보내셨다. 그리하여 구원의 참된 경륜을 전하셨다. 그러나 『로마』는 그 비출 배척하였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오래 붓드셨지마는 『로마』는 옛적 『바벨론』—달아보아 부족하다는 선언을 바든 『바벨론』과 가리 하나님의 경륜대로 멸망의 시기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로마』는 마침내 여러나라로 분렬한바 되었다. 니킴 타발의 묵시중 처음 네 타발은 하나님께서 일즉이 『바벨론』왕 『노부갓네살』에게 보이신바 큰 우상의 발이 열발가락으로 된 것처럼 『로마』가 일어나라로 나누일 중대한 사건을 표시한 것인데 이 일은 기원四七六년에 완전히 성취되었다.

『로마』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는 『로마』황제 『칸스탄틴』이 『로마』나라의 도성을 『로마』성에서 『칸스탄티노플』로 옮긴 그 때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후 오래지 아니하여 三三七年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관도가 필경 『칸스탄틴』황제의 세아들 『칸스탄티어스』와 『칸스탄틴』二世와 『칸스탄스』에게 三분되었는데 『칸스탄티어스』는 동부지방을 차지하고 『칸스탄틴』二世는 『뿌리테니아』와 『가리아』와 『이스파니아』를 차지하고 『칸스파니아』를 차지하였다. 『칸스파니아』를 차지하였다. 그리지 얼마 아니하여 이 세나라는 다시 동서 『로마』로 나누었다가 서 『로마』는 북방 만족들의 침략을 바다



첫 저 라 발 로 빛 로 발 라 저 첫 지 와 발 라 저

첫저 라발을 볼새에 피석진 우박과 분
이 나서 석에 쓰다지니 석 三분의 一이 라
바리었다. 우박은 찬물건이니 북방으로부터
침략해 오는것을 표상하기에 적당하고 분은
사료아 멸하는것이니 도시와 촌락이 파멸되
는 상태를 표상하기에 적당하고 피는 말할
것도입시 학살이나 살상을 표상한것으로 이
것들은 『로마』제국의 三분의 一에 해당하는
『로마』전반에 미친 참화를 의미하는것이다.
곳 북방의 『쇼-드』(Goths)족과 『게루만』
(Germanic)족의 침범할것을 표상한것이니
괴원(二九五)에서 『쇼-드』족의 대장『알라리』
(Alaric)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로마』지경을
침로하야 여러지방을 소란케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알프스』의 험산을 넘어서 『이
탈리아』의 평야로 드러가 도처에서 살륙,
략탈, 방화를 하고 『로마』성을 쳐고 온 성
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하는 한편으로 또

마침내 열나라으로 나누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발에 대하여 연구할새에 三
분의 一이란 말이 한물것인데 이는 곳 『로마』관도의 세부분중에 한부분을 가리키는것이
다. 『로마』는 칸스탄틴 황제의 세아들의 시대말고도 세부분으로 나누인 력사가 여러
번 있는바 『프리만』의 저술한 『구라파의 력사지리』라는 책에는 『로마』제국의 세부분
을 『로마』본부, 『그리시아』, 동방으로 분류하였다. 또 『역사록개략』이란 책에는 『칸스탄
틴』황제가 『로마』를 통일하기전 형편에 대하여 말하기를 『칸스탄틴』당시의 『로마』제
국은 세 큰 부분으로 나누였으니 『칸스탄틴』에게 속한것은 『가리아』와 『이스파니아』와
『부르페니아』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이고 『리시니우스』(Licinius)에게 속한것은 『일리
리아』현(縣) (Illyrian Praefecture) 이며 『마시민』(Maximin)에게 속한것은 『아시아』
도(道)와 『일리아』이었다』고 하였다.

이 세부분으로 말하면 각각 룩저의 三분지 一을 차지하였을뿐 아니라 『로마』의 령해(領
海)인 지중해의 三분지 一도 차지하였고 또 세 큰 강인 『라인』강과 『다뉴브』강과 『유
부라데』강의 하나씩을 차지하였다. 과연 『칸스탄틴』시대의 이 세 부분은 학자들의 일반
적으로 승인하는바이다.

첫저 라 발 (북편에서나오는 『쇼-드』족)

『첫저 천사가 라발을 부니 피석진 우박과 불이 나서 석에 쓰다지매 석 三분의
一이 라서 사위고 모든 푸른풀도 라서 사위더라』

한 『게루만』족은 『라다가이서스』(Rhadagaisus)의 지휘하에 『반달』 『수에바이』 『발칸』의 안』 『쇼—드』등 여러 족속을 거느리고 『이탈리아』로 드리웠다. 그리하여 일부분은 실패를 하였으나 그외의 대부분은 서편으로 도라서 『가리아』와 『이스파니아』를 침략하여 『알라리』의 군사가 행한 것처럼 도처에서 파괴와 방화와 살육을 행하였다. 성정은 이 사실들을 가리쳐서 『로마』의 사위였다고 한 것이다.

셋째 라발 (『반달』의 침략)

「셋째 천사가 라발을 부니 불꽃은 큰산을 바다에 던지는것 같은지라 바다 삼분의一的이 피가 되매 바다가운데 생명 가진 조물들이 삼분의一이 죽고 배가 삼분의一이 깨어지리라」

셋째 라발을 불쌍애는 불꽃은 큰산이 바다가운데 던짐을 입었는데 「불꽃은산—은 멸망한 나라 혹은 멸망하였는 나라를 표상한 것이다. (렘五十一—廿五참고) 그런데 산이 바다에 던진바 된것을 본즉 이 나라의 바다에서 큰일을 행할것을 알수잇는바 과연 『반달』족의 대장 『젠세릭』(Genserik)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라파르부라 『지부랄타』(Gibraltar)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북부의 이르리 『로마』의령도를 정복한후 나라를 세우고 강한 해군을 조직하여 지중해의 패권자가 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시실리』(Sicily) 섬과 『사르디니아』(Sardinia) 섬 정벌하고 『이스파니아』와 『가리아』와 『이탈리아』의 연해안을 약탈하고 드디어 『로마』까지 이르러 十四일간이나 약탈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로마』는

여러가지 계교를 베프러 『젠세릭』의 군대를 멸하고자 하였으나 『젠세릭』은 『로마』의 계교를 미리 알고 그것을 막기위하여 먼저 준비하였다. 기원四六八년에 『로마』는 『반달』군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사 十만과 병선 一천—백—三척으로 『카레이지』(Carthage)를 향하여 출정하였다. 이것을 안 『반달』군대는 밤을 타서 『로마』병선에 불을 지르니 마침내 추사오나운바람이 부는새라 그 많은 『로마』의 함대는 고만 불에 타서 순식간에 전멸한바 되었다. 『로마』가 이와가리 패하며 『젠세릭』의 해군은 완전히 지중해를 지배하였으며 『로마』는 점점 더 쇠하여 졌다.

셋째 라발 (『아틸라』와 『헨스』족)

「셋째 천사가 라발을 부니 큰별이 화불컨것 가라야 하늘에서 썩러져 강 삼분의一과 여러 불샘에 떨어니 이별 이름은 썩이라 불 삼분의一이 썩이 되매 여러 사람이 이 그 불이 쓰게 됨을 인하여 죽더라」

셋째 천사가 라발을 불쌍애는 화불컨것 같은 큰별이 하늘에서 썩러졌는데 그 이름을 썩이라 하였다. 이는 『헨스』족의 대장 『아틸라』(Attila)를 가리칭인바 『로마』에 대하여 세번이나 쳐이겼는데 『트레이스』(Thrace)와 『마게도니아』와 『그리시아』가쳐를 소탕하였으며 그 후에 『가리아』(Gaul) 지방이던 비리가 인평을 살해하고 모든 도시와 촌락을 불살오아 버렸다. 한편 『피마』대장 『아티우스』(Aetius)가 대군을 거느리

고 나와 『아틸라』의 군대로 더부러 싸와 적군을 크게 파하였으나 이 전쟁에 죽은 자가 양군가운데 대략 十六만명이나 되었다. 과연 『헌스』대장 『아틸라』는 화불컨 별과 가티나라나 싸웠나니 려사가 『세본』은 『아틸라』는 자기가 라고 지나간 말굽자리에는 풀도 나지안는다고 호언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넛재 라발 (『로마』의 멸망)

넛재 천사가 라발을 부니 해 三부의 一과 달 三부의 一과 별 三부의 一이 침을 바 다 그 三부의 一이 어두어지니 낮 三부의 一은 비침이 업고 밤도 또 그와 같더라 이기에 말한 해와 달과 별은 곳 황제와 집정(執政)과 의원들을 가리침인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여진 『로마』정부는 북방과 남방과 동방으로부터 작고 침범하여 드러오는 만족들때문에 멸망을 면치못하게 되었다. 그 령도는 집정 싸앗기고 그 군대는 도처에서 패전만하여 일족이 소항부적이라든 『로마』군이 지금은 빈이름만 남았을뿐이었다. 『아틸라』의 죽은후 二十년을 지나 『로물러스』어거스투스 (Romulus Augustus)가 최후로 황제위에 올랐는데 『로마』최초의 왕이 『로물러스』요 또 최후의 왕도 『로물러스』이며 『로마』최초의 황제가 『어거스투스』요 또 최후의 황제가 『어거스투스』인것은 우연이지마는 이상한 인연인듯하다. 그런데 『로물러스』황제당시에 『헤룰라이』의 대장 『오도아키』(Odoacer)가 이전 『아틸라』에게 속하였든 군사의 대장이 되어 서 『로마』 황제를 폐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로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권위있는 늙은사람들이 거의

다 그에게 항복하며 『오도아키』는 서 『로마』의 권세를 어디 『이탈리아』를 통치하게 되었으며 오래지아니하여서 집정도 폐하고 원로원도 해산하여 버리었다. 이 일을 가리쳐 성정은 해와 달과 별 三부의 一이 어두어진다고 하였다.

세가 지화

「내가 또 보고 드르니 공중에 날라가는 독수리가 크게 소리하여야 르대 화가 잇을지어다 화가 잇을지어다 화가 잇을지어다 화가 잇을지어다」
리가 아직 남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이미 넛재 라발씨지에 세상에 이러날 어지러운 일에 대하여 연구하였거니와 아직도 세 라발이 남아있다. 이 남아잇는 세 라발은 그 요란함이 더욱 심하겠는고로 한 독수리 (역문홍정역성경에는 천사라고 번역되었다)는 공중에 날며 크게 소리하여 그 세 라발이 화잇을것을 공포하였다. 곳 다섯재 라발은 첫재화, 여섯재 라발은 들재화 날 곱재 라발은 셋재화가 될것이다.